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3, pp. 281-289,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3.281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이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및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

박진희, 이도영*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Effect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Program among Final Year Nursing Students on Performance Confidence, Clinical Performance Capacity and Core Nursing Ability

Jin Hee Park, Do-Young Le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이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및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 연구이다. 2018년 8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주 동안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을 졸업학년 간호대학생 80명에게 적용하였다. 자가 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24.0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을 적용한 이후 수행자신감(t=-10.68, p<.001), 임상수행능력(t=-22.13, p<.001), 핵심간호역량(t=-19.78,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를 통해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의 교육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으며, 보다 숙련되고 전문적인 간호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핵심기본간호술, 임상수행능력, 수행자신감, 핵심간호역량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program among final year nursing students on their performance confidence, clinical performance capacity, and core nursing ability. The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program was applied to 80 final year nursing students for 6 weeks from August 27 to October 10, 2018. The survey was done in self-writing metho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paired t-test. It was found that performance confidence, clinical performance capacity, and core nursing ability had increased after the program,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us, it is expected that step-by-step and continuous education on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program will upgrade those final year nursing students as skilled and professional nurse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Clinical competence, Self-confidence, Core nursing ability

This work was supported by Changshin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8-33.
*Corresponding Author : Do-Young Lee(shine@cs.ac.kr)
Received October 29, 2019 Revised January 13, 2020
Accepted March 20, 2020 Published March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관의 대형화 추세는 간호 직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로 그 역할이 더욱 복잡해지고[1], 고도로 발달된 의학기술은 대상자의 기대수준과 간호 요구 수준을 높이고 있다[2].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맞추어 간호사는 다양한 의료 상황에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통하여 간호실무를 주도적으로 자신 있게 수행하는 책임감 있는 전문인으로써의 간호역량이 필요하다[3].

간호학은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를 기본으로 한 학문이므로, 간호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통합적으로 교육하여 역량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실습교육은 간호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적 지식을 임상 상황에 적용하고 본인 스스로 학습과 경험을 얻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4].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수행 빈도와 중요도가 높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하는 간호사의 핵심역량을 숙달하여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그 역할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간호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실습교육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숙달되고 성취되어야 할 20항목의 핵심기본간호술을 교육하고 있다[5]. 이는 핵심기본간호술을 통하여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최소한의 질 보장을 위한 평가 체계를 운영하여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일정수준의 핵심간호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6].

졸업 후 간호사는 간호교육기관에서 배운 간호지식과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간호실무 간의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느껴[7], 취업 후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보고되며[8], 따라서 졸업 전에 간호사들의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7]. 특히 실무에서는 임상수행업무를 위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실수로 인하여 이직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임상수행업무 시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9], 적응력 향상을 위해 임상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 및 기술에 대한 충분한 습득과 연습이 요구된다[10].

또한 졸업 후 신입으로 임하는 간호사들의 대부분은 간호실무현장에서 자신에게 오는 기대와 환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자신감 결여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졸업 전에 간호실무수행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 내에 핵심기본간호술을 반복하여 연습하고 평가가 필요하다[11]. 특히 정규 임상실습을 마친 후에도 간호사로서 익혀야 하는 필수적인 수행능력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고 졸업하게 된 간호학생들은 신규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제한을 느끼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사 후 재교육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게 된다[12].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은 학습경험이 많을수록 높았으며[13], 신입간호사의 경우 핵심기본간호술을 많이 경험해 볼수록 임상 현장에서의 자신감은 높고, 업무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0]. 핵심기본간호술은 전공 지식과 숙련된 간호술이 통합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적 기술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술기 역량이다[5]. 하지만 이러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을 통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교육에 중요하게 제시된 핵심간호역량을 갖추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은 국가고시를 거쳐서 임상현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간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 졸업 후 신규간호사들의 업무수행능력이 환자의 요구나 실무현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14], 대부분의 간호교육기관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을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핵심기본간호술의 경험이 많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아지며[13-17], 이러한 핵심기본간호술에 따른 수행자신감에 대한 연구는 간호대학생[15,17,18]을 비롯하여 졸업학년 간호대학생[13,19], 신규간호사[11,20]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교육에서 제시된 학습성과의 핵심간호역량 중 하나로 기본적으로 임상에서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자신감이 임상수행능력과 핵심간호역량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과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실습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개 항목의 핵심기본간호술의 일정기간동안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셋째,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이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및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연구이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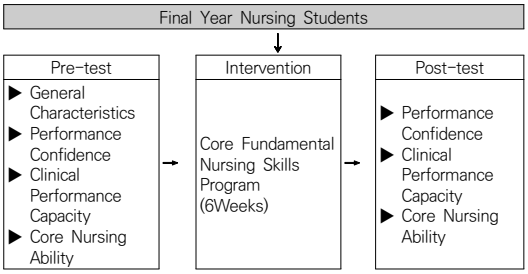

Fig. 1. Study Design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K지역의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다. 연구 대상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였으며, 대상자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G*Power 3.1.9.2 프로그램[21]을 이용하였다. 산출을 위하여 t-test의 one sample case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 수준 .05, 효과크기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크기가 45명으로 나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간호대학의 졸업학년 간호대학생 전원인 94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여 표본크기를 충족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누락되거나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80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해 간호대학생이 실습과정 중 핵심기본간호술을 수행함에 따른 자신감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점수를 뜻한다. 선행연구인 Bang[10]의 연구에 근거하여 '능숙하게 할 수 있다' 5점, '잘 할 수 있다' 4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3점, '미숙하지만 할 수 있다' 2점, '전혀 못 하겠다' 1점까지 선택하여 설문지에 작성한 평가 점수를 나타낸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Bang[10]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다.

2.3.2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는 Kim[22]이 제시한 핵심간호능력 중심 간호학 실습 교육목표를 토대로 Son 등[23]이 일반간호사에게 분야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이다. 이는 7개 핵심능력 분류와 64개 간호실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수행능력 정도를 4점 척도로 '전혀 할 수 없다'의 1점에서 '매우 잘 할 수 있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RN-BSN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on 등[23]의 연구에서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4이었다.

2.3.3 핵심간호역량

핵심간호역량은 졸업을 앞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Ju & Song[14]가 개발한 핵심간호역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전문직관 4문항, 비판적 사고를 통한 통합적 간호 6문항, 의사소통능력 4문항, 간호리더십 5문항, 생명존중 3문항, 스트레스 관리 2문항, 간호연구 4문항, 핵심간호술 2문항의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u & Song[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이었다.

2.4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는 졸업을 앞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6주간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사전조사,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 적용, 사후조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2.4.1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역량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에게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 일주일 전에 측정하였다.

2.4.2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은 2018년 8월부터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6주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20개의 항목을 일주일에 4시간씩 2가지 항목을 총 10주간에 걸쳐 교육한 연구[20], 7개의 핵심간호술을 핵을 50분씩 하루에 교육한 연구[24]등 다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 및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최적의 교육시간과 횟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학과 교수자의 타당도를 수행한 후 프로그램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에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20가지 항목[6]을 첫 3주간은 20항목을 한 학생당 한 개의 항목을 20회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연습 시간을 15분으로 한 조당 4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남은 3주간은 본 대학의 교수자 15명, 현장지도자 34명, 졸업학년 간호대학생 80을 대상으로 중요도와 수행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여 점수가 높은 6항목을 선정하여 한 학생당 한 항목을 30회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연습 시간을 15분으로 배정하여 한 조당 4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그 정도가 중요하고 수행도가 높다고 평가된 6항목은 정맥주입, 수혈요법, 유치도뇨, 피하주사, 피내주사 기관절개관 관리이었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습연구원과 기본간호학 교수자 3명이 관리를 하였으며, 사전에 실습교육의 목적,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이해하고 실습실 4곳에서 조별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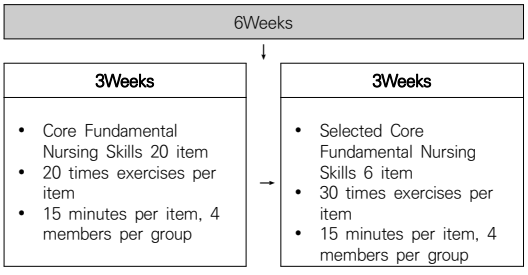

Fig. 2.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Program

2.4.3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 주에 시행하였으며 사전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연구 참여 시 개인 정보 보호, 설문지에 응답에 대한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후 동의를 한 대상자에게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향상된 점수에 대한 피드백과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오픈 랩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설문지에 응답 후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었다.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가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으며, 대상자는 익명이 보장되며 설문 자료는 암호화하여 코딩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본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연구 진행 중이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설문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었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SPSS/Win 24.0 PC+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고,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역량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 후의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역량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80명 중 남학생이 3명(3.8%), 여학생이 77명(96.2%)이었으며, 나이는 21-23세가 74명(92.5%), 24-26세가 6명(7.5%)이었다. 이전학기 전체 성적은 3.0점 미만이 9명(11.3%), 3.0점-3.5점 사이는 28명(36.2%), 3.5점 이상은 42명(52.5%)이었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보통'이 53명(66.2%)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은 14명(17.5%), '불만족'은 13명(16.3%)을

나타냈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보통'이 49명(61.2%)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이 20명(25.0%), '불만족'이 11명(13.8%)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흥미정도에서는 '보통'이 47명(58.7%)로 가장 높았으며, '낮음'이 18명(22.5%), '높음'이 15명(18.8%)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보통'이 45명(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이 21명(26.3%). '불만족'이 14명(17.5%)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취업이 잘되어서' 29명(36.3%), '적성에 맞아서' 20명(25.0%), '부모님, 선생님의 권유' 16명(20.0%), '고교성적 고려' 14명(17.5%), '봉사직을 갖기 위해서' 1명(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서는 '필요하다'가 80명(100%)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80)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ale	3(3.8)
	Female	77(96.2)
Age(years)	21-23	74(92.5)
	24-26	6(7.5)
Previous grades	<3.0	9(11.3)
	3.0≤~<3.5	29(36.2)
	3.5≤	42(52.5)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Unsatisfied	13(16.3)
	Usally	53(66.2)
	Satisfied	14(17.5)
Major satisfaction	Unsatisfied	11(13.8)
	Usally	49(61.2)
	Satisfied	20(25.0)
Interest in University life	Low	18(22.5)
	Common	47(58.7)
	High	15(18.8)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Unsatisfied	14(17.5)
	Usally	45(56.2)
	Satisfied	21(26.3)
Attitude to University life	Passive	8(10.0)
	Usally	49(61.3)
	Active	23(28.7)
Motive to select the nursing department	Considering the high school grad	14(17.5)
	It fits to my aptitude	20(25.0)
	It gives me good opportunity to be employed	29(36.3)
	Recommended by parents and teacher	16(20.0)
	To have service job	1(1.2)
Necessity of Core Basic Nursing	Necessity	80(100)
	Unnecessity	0(0)

3.2 대상자의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및 핵심간호역량의 차이검증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이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및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차이 검증은 Table 2와 같다.

첫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사전에 3.32점에서 사후 4.30점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0.68, p<.001).

둘째, 임상수행능력은 사전에 2.25점에서 사후 3.46점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2.13, p<.001).

셋째, 핵심간호역량은 사전에 3.00점에서 사후 4.36점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9.78, p<.001).

Table 2.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Program Effect (N=80)

Variable	Pre	Post	t	p
	M±SD	M±SD		
Performance Confidence	3.32±0.74	4.30±0.38	-10.68	<.001
Clinical Performance Capacity	2.53±0.34	3.46±0.26	-22.13	<.001
Core Nursing Ability	3.00±0.50	4.36±0.40	-19.78	<.001

3.3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세부 차이 검증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세부 차이 검증은 Table 3과 같다.

핵심기본간호술 20개 항목 중 19항목에서는 수행자신감이 사후에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술 전 간호의 항목에서는 3.93점에서 4.34점으로 향상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0.76, p=.448).

Table 3. Sublist Differences in Performance Confidence (N=80)

No	Variable	Pre		Post		t	p
		M±SD		M±SD			
1	Vital sign check	4.20	1.05	4.75	0.54	4.06	<.001
2	Oral medication	4.01	1.16	4.72	0.50	4.78	<.001
3	Intramuscular injection	3.23	0.86	3.96	0.72	5.88	<.001
4	Hypodermic injection	3.33	1.03	4.05	0.71	5.10	<.001
5	Intradermal injection	3.05	0.87	4.08	0.73	7.78	<.001
6	Intravenous injection	2.70	0.85	3.99	0.70	10.22	<.001
7	Transfusion therapy	3.08	3.39	4.10	0.67	2.64	.001
8	Intermittent gastrointestinal nutrition	3.33	1.20	4.23	0.66	6.15	<.001
9	Nelaton catheterization	2.95	1.02	4.16	0.74	8.22	<.001
10	Indwelling catheterization	2.64	0.92	4.08	0.69	10.72	<.001
11	Enema	3.04	0.89	4.16	0.65	8.91	<.001
12	preoperative care	3.93	4.75	4.34	0.65	0.76	.448

13	postoperative care	3.45	1.02	4.43	0.63	6.91	〈.001
14	Admission management	3.48	1.11	4.41	0.63	6.73	〈.001
15	Wear protective equipment and waste management	3.31	1.14	4.48	0.66	8.20	〈.001
16	Pulse oximeter check & EKG monitor apply	3.34	1.04	4.51	0.62	8.70	〈.001
17	Oxygen therapy with nasal cannula	3.64	0.97	4.54	0.62	8.11	〈.001
18	Endotracheal suction	3.19	0.83	4.30	0.66	10.28	〈.001
19	Tracheostomy care	3.08	0.85	4.24	0.64	9.92	〈.001
20	CPR and defibrillator application	3.45	0.90	4.44	0.61	8.32	〈.001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과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실습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6주간의 프로그램 실시 이후 유의하게 점수가 높아졌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강화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자신감 및 수행능력이 높아진 선행연구[24]의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수행 경험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13,15-17], 선행연구[13]에서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을 수행 경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술기의 난이도, 중요도, 학습단계 등을 고려하여 연계성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졸업 후 신입간호사를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을 조사한 결과 학습방법에서 시뮬레이션 실습과 임상실습에서 경험하지 않은 항목에서 수행자신감이 낮게 나타났다[11]. 따라서, 수행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을 수행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은 보다 효율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을 숙달하기 위하여 3주 동안 20항목을 연습한 후, 중요도와 수행도를 고려하여 6항목을 선정하여 3주간 연습을 하였다. 그 결과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및 핵심간호역량에서 유의하게 향상을 보였으며, 이는 중요도 및 수행도 등의 고려와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기별 수행자신감의 세부 차이 검증 결과 수술 전 간호 항목을 제외하고 19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세부 항목의 사전 점수를 확인한 결과, 활력징후측정, 경구투약은 4.0점 이상의 높은 수행자신감을 보였으며, 정맥주입, 단순도뇨, 기관절개관 관리 및 기관내 흡입은 3.0에 가까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10,18] 활력징후, 경구투약의 항목에서도 수행 빈도가 높아 자신감이 높았으며, 단순 및 유치도뇨, 기관절개관 관리 및 기관내 흡입은 수행 빈도가 낮아 자신감이 낮았던 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빈도가 높은 항목에서는 임상실습에서 환자를 통하여 직접 수행해볼 수 있는 비침습적인 술기였으며, 빈도가 낮은 항목은 환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중요시되고 침습적인 항목이었다. 따라서 수행 빈도가 낮게 분석되고 침습적인 항목에서는 최대한 임상 상황을 실현하여 시나리오를 통한 모형이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접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선행연구[11]의 연구에서는 학습방법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자신감을 분석한 결과 시뮬레이션보다는 임상실습을 통하여 실습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침습적이고 간호학생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항목의 술기는 임상실습 중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침습적인 항목은 졸업 후 신규간호사가 되어 주력하여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임상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사가 어느 임상현장에 있어도 동일하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으로[22], 본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들의 임상수행능력은 중재 이후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간호술을 적용한 선행 연구[8,15,24]와 동일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임상수행능력의 측정도구는 정보수집, 기본간호수행,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교육 및 지도력, 관리능력, 전문직 발전 태도 및 실천 능력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향상은 핵심간호역량의 향상과 상관성 있게 향상되었다. 이와 함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호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술기 교육은 장비, 물품, 인력 등의 고비용이 따르는 교육과정이므로 최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의 교수학습방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24]. 선행연구[24]에서도 난이도가 낮은 술기의 경우 동영상이나 시범교육으로 운영하고, 난이도가 높은 술기의 경우 실습교육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언하면서 핵심기본간호술기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형태의 다면적인 교수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의 핵심간호역량은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을 6주 실시한 이후 유의하

게 높아졌다. 이는 6주 동안 다른 교과목의 영향에 대한 요소를 배제할 수 없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20개의 술기를 종합적으로 술기를 마무리하면서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점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대상자들은 졸업직전까지의 핵심기본간호술기를 교내실습과 시뮬레이션, 임상실습 등을 통하여 습득하고 학습하였으나,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습을 수행할 기회는 없었다. 6주 동안 20개의 술기의 지식, 기술, 태도적인 부분을 실습연구원과 기본간호학 교수자 아래 종합적인 지도를 받고, 중요도와 수행도를 고려하여 심화실습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면서 간호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론적으로 습득한 간호지식은 임상 현장 실습에서 직접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서 실제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나 현재의 임상실습 교육은 이론과 실무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실습지도 교수의 부족 등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간호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채 졸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25].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간호학생의 요구에 관한 선행연구[12]에서 학생들이 임상 실습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기본간호술기로 나타났으며, 신규간호사들도 임상 상황에서 기본간호술기의 숙련성 부족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12]. 따라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핵심간호술기의 교육을 필요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25]. 최근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간호사의 수행능력이 더욱 요구되면서, 간호대학 졸업생이나 신규 간호사에게 최소한의 표준화된 임상 수행 능력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26], 핵심적인 기본간호술은 더욱 증가하고 필요 시 될 것이다. 따라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의 개발과 난이도나 술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방법의 적용되어야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숙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기에 대한 자신감의 향상에 따라 긍정적으로 다른 요인의 향상을 가져왔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신감을 비롯하여 그와 결부된 요인이 심리적인 요인이었다. 따라서 수행자신감이 심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인지적이고 통합적인 요인과도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K지역의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으로 단일군 전후설계를 통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6주 동안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안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및 핵심간호역량을 자가보고 방식에 의해 측정함으로써, 향후 대상자들이 임상현장에서의 실제로 수행하는 임상수행능력 및 핵심간호역량에 대한 관계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간호사가 되어서까지 임상수행능력 및 핵심간호역량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및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전문직 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졸업시험이 임상수행능력, 수행자신감 및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 후 20개의 핵심기본간호술을 6주 프로그램 실시 이후 사후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임상수행능력, 수행자신감 및 핵심간호역량 모두 사전 보다 사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졸업학년 간호대학생들에게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술기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중요도와 수행도에 따라 심화실습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따라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으며, 추후 핵심기본간호술기의 효율적인 습득과 숙달을 위하여 난이도와 학습방법에 대한 다면화를 위하여 교수자 및 임상실습 기관을 긴밀한 협조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 부족한 임상수행능력 및 핵심간호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H. J. Won & S. H. Joo. (2013). A Review of Research

on Self-leadership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3),* 382-393.
DOI : 10.11111/jkana.2013.19.3.382

[2] H. J. Park. (2015).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27-236.
DOI : 10.5977/jkasne.2015.21.2.227

[3] H. S. Kang & Y. Y. Kim. (2017).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617-625.
DOI : 10.5762/KAIS.2017.18.5.617

[4] N. Suwan, N. Kasatpibal & P. Sawasdisingha. (2013). Effects of student-centered teaching on knowledge, practice, and satisfaction of clean techniques among second year nursing students. S*ingapore Nursing Journal, 40(4),* 30-37.

[5]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a). Public hearing on the accreditation of nursing: Strategies for the accreditation of nursing in 2012. Seoul: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6]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9). *Title of Website.* KABON [Online]. http://kabon.or.kr/ kabon02/index04

[7] S. K. Lee, S. N. Park & S. H. Jung. (2012).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4),* 460-473.
DOI : 10.11111/jkana.2012.18.4.460

[8] M. Y. Joo. (2014). Effects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on Self-efficacy, Clinical Compet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1(3),* 292-301.
DOI : 10.7739/jkafn.2014.21.3.292

[9] K. O. Park & J. K. Kim. (2013). A Study on Experience of Transition from New Clinical Nurse to Competent Step.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594-605.
DOI : 10.5977/jkasne.2013.19.4.594

[10] S. S. Bang & I. O. Kim. (2014). Relationship among Essentials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Performance, Stress from Work and Work Capability of New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628-638.
DOI : 10.5977/jkasne.2014.20.4.628

[11] Y. H. Kim, S. Y. Whang & A. Y. Lee. (2014). Perceived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ew Graduate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37-46.
DOI : 10.5977/jkasne.2014.20.1.3

[12] I. S. Kwon & Y. M. Seo. (2012).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25-33.
DOI : 10.5977/jkasne.2012.18.1.025

[13] A. K. Han, D. S. Jo & J. S. Won. (2014). A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and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s in Nursing Practicum among Final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1(2),* 162-173.
DOI : 10.7739/jkafn.2014.21.2.162

[14] G. E. Joo & K. A. Song. (2014). Development of Nursing Competence Scale for Graduati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8(3),* 590-604.
DOI : 10.5932/JKPHN.2014.28.3.590

[15] A. W. Jung & M. Y. Moon. (2018). Study on the Clinical Competence,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Frequency of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during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9),* 451-463.
DOI : 10.21742/AJMAHS.2018.09.30

[16] S. O. Kim & B. H. Kang. (2016).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Recognition of Importance and Learning Self-efficacy f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their Self-confid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172-182.
DOI : 10.5762/KAIS.2016.17.8.172

[17] H. H. Han. (2016). A Study of Convergence on Frequency of Performance, Self-Confidence,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of Core Nurs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8),* 355-362.
DOI : 10.14400/JDC.2016.14.8.355

[18] M. G. Kim & H. S. Lee. (2017). Effects of Core Basic Nursing Education using Cellular Phone Video Recordings on Self-confidence in Performance, Achievement, and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4(2),* 128-137.
DOI : 10.7739/jkafn.2017.24.2.128S. Y. Jo, M. S. Kang,

[19] Y. R. Yeom & K. B. Choi. (2016). Effects of the Reeducation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Clinical Stres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Confidence in Nursing Skills of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283-293.
DOI : 10.5977/jkasne.2016.22.3.283

[20] H. W. Kim & J. Y. Chio. (2017). Clinical Competency, Confidence and Frequency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among Junior Nursing Officers. *Korean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105-116,
DOI : 10.31148/kjmnr.2017.35.2.105

[21] F. Faul, E. Erdfelder, A.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al Research Methods, 39(2),* 175-191.

[22] M. W. Kim. (2006). Development of Objective in Nursign Clinical Education based on the Nursing Core Competenc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9-402.

[23] J. T. Son, M. W. Park. H. R. Kim, W. S. Lee & K. O. Oh. (2007). Analysis of RN-BSN Students' Clinical Nursing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5),* 655-664.
DOI : 10.4040/jkan.2007.37.5.655

[24] Y. O. Ha & J. Y. An. (2017).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Core Nursing Skills Improvement Program on Nursing Skills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5),* 223-231.
DOI : 10.15207/JKCS.2017.8.5.223

[25] Y. J. Kim, M. W. Jin. (2012). The Lived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for Essential Nursing Core Skill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3(2),* 105-116.

[26] C. J. Klein & E. R. Fowles. (2009). An investigation of nursing competence and the competence outcomes performance assessment curricular approach: Senior students' self-reported perception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5(2),* 109-121.

박 진 희(Jin Hee Park) [정회원]

· 2011년 12월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Long Beach) (Master of Science in Nursing)
· 2017년 2월 : 동아대학교 간호학부(간호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호스피스, 간호안전
· E-Mail : parkjh124@cs.ac.kr

이 도 영(Lee Do Young) [종신회원]

· 2010년 8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 스트레스, 간호중재
· E-Mail : shine@cs.ac.kr